

건축계 소식

한국건축문화대상·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작품심사 완료



2015한국건축문화대상과 2015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작품심사가 완료됐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1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현장심사가 지난 7월 6일부터 8일,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간 펼쳐졌다. 준공건축물부문은 ▲사회공공 ▲민간 ▲공동주거 ▲일반주거 등 모두 110작품이 출품돼 경쟁이 치열했다. 경합을 벌인 결과 총 25작품이 1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과했으며, 통과작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은 전국단위의 작품현장심사를 진행했다. 대상(대통령상)과 분상(국무총리상) 수상작 등 심사결과는 오는 9월 시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다.

한편, 젊고 유능한 신진건축사를 발굴해 시상·지원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2015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에 대한 현장심사도 7월 29일부터 30일, 8월 5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신진건축사대상에는 총 42작품이 응모했으며, 최종 결과 5인은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쳐 9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바르셀로나를 꿈꾸다. 안토니 가우디展’

안토니 가우디를 조망하는 ‘바르셀로나를 꿈꾸다. 안토니 가우디展’이 오는 7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독창적 양식으로 세계 건축과 예술, 디자인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가우디의 건축 도면, 디자인 도면, 스케치, 캐스트, 가구, 장식, 당대의 기록 사진, 멀티미디어, 건축물 모형 등 200여 점이 준비된다. 입장료는 성인 15,000원, 대학생(학생증 지참시) 13,000원, 초중고생 10,000원이다.

<전시문의: 한가람디자인미술관/02-580-130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2015 건축사 정담회’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지난 7월 2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루홀에서 「2015 건축사 정담회」를 개최하고 회원과 비회원간에 소통하고 협회 정책홍보 및 정보 교환을 통해 협회가입 유도 및 교류를 활성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건축사정담회는 회원확충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함께하는 건축사, 소통하는 건축문화 창조콘서트”라는 부제 속에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구건축사회 소속 비회원 44명과, 4개구 건축과장 및 회장단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열려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인수)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0일 대전 선사인컨벤션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85년 대전에서 신화건축사사무소를 창업한 후 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국적인 회사로 성장했고, 과학기술훈장, 석탑산업훈장 수훈 등 국가 건축산업 발전에 헌신해 왔다.

‘Architect’의 올바른 표기는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에 공문 보내 ‘건축사’ 사용 요청

<UIA 정관 내 ‘회원단체’ 부분>

ARTICLE 2	ARTICLE 2
2.2 UIA Members shall be representative of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of professionally qualified architects residing and practising in the country, group of countries (as defined in Bylaw II.3), or territory that they represent. When architects are represented by a body that groups together representatives of several professions, architects must have within this body, as far as relations with the UIA are concerned, freedom of decision in matters pertaining to architecture and the UIA.	2.2 UIA 회원은 각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거주하며 실무를 하는 건축사들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Bylaw II.3에서 정의하는 국가(Country)의 단체이거나 지역(Territory)의 단체이어야 한다. 건축사가 여러 전문 직종을 같이 대표하는 단체에 의해 대표되는 경우에는 연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사가 단체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건축(Architecture) 및 UIA를 포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UIA Accord(합의서) 내 ‘건축사’ 정의>

Architect	건축사
Definition: The designation <architect> is generally reserved by law or custom to a person who is professionally and academically qualified and generally registered/licensed/certified to practice architecture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he or she practices and is responsible for advocating the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lfare, and the cultural expression of society's habitat in terms of space, forms, and historical context.	정 의 : <건축사>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법과 관습에 의해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실무하고 있는 관할지역내에 실무를 하기 위해 법적으로 등록을 한/자격증을 취득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공간, 형태와 역사적 맥락에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거에 대한 문화적 표현에 대해 옹호할 책임이 있다

우리협회는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2017 UIA 서울 세계 건축대회」와 관련해 사용되는 ‘Architect’의 표기를 ‘건축사’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UIA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 및 규정과 우리나라 건축사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Architect에 대한 올바른 국문명칭은 ‘건축사’가 타당하므로, 향후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를 비롯한 모든 문서작성 시 ‘Architect’는 ‘건축사’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UIA(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는 세계 130여개 국가의 건축사단체가 구성원인 연합체로, 지난 1948년 6월 스위스 로잔에서 창설됐다. 회원의 자격은 ‘UIA정관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건축사(Qualified Architect)’들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 또한 UIA Accord(합의서)는 ‘Architect’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실무를 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UIA의 이러한 기준을 참고해볼 때, ‘Architect’는 ‘건축사’의 해석·표기가 맞다. 앞서 지난 2000년 3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공무원과 건축 관련 단체, 학회 등이 참여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도 법률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직의 의미로 ‘Architect’의 국문명칭은 ‘건축사’로 사용하기로 정했다.

‘건축가’라는 명칭사용 제한은 법적으로도 근거를 갖는다. 건축사법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가·건축설계사 등은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몇 년 전부터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홍보물과 공문서에 ‘Architect’를 ‘건축가’로 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하는 직업이 ‘건축가·건축설계사’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민·관에 건축사 명칭 바로쓰기 요청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

7월 17·18일 양일간 ‘2015년도 협회발전 워크숍’ 열어



우리협회는 지난 7월 17, 18일 양일간에 걸쳐 덕산에 위치한 리솜스파캐슬에서 본협회 임원 및 위원장, 시도건축사회 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협회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금년 협회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열려 의미가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첫째 날 국토부 김진숙 건축정책관의 초청강연, 협회 조충기 회장의 기조연설, 윤혁경 부회장과 한명수 고문의 주제발표, 둘째 날은 이사회, 시도회장단 회의, 위원장 협동회의, 감사 초청강연, 이성우 부회장의 주제발표, 회장과의 대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초청강연으로 국토부 김진숙 정책관은 ‘정부의 건축정책 방향’의 제목으로 ▲건축협정제 ▲소규모 리뉴얼 방식도입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강화 ▲건축안전산업 육성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했다. 조충기 회장은 “협회 50년,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기조연설에서 협회가 어디로 가야하며,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물음에 대한 장기 전략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를 통한 현황 분석을 가지고 설명했다. 또한 윤혁경 부회장이 ‘건축사의 현실,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앞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어떻게 해야 하고, 건축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